

# 김성주 · 이원택 의원, 민주 도당위원장 출마

문 대통령 “국민 안전 제일 중요 인명 피해 없도록 총력”

김성주 “전북에 새로운 리더십 필요... 성공시대 열 것”  
이원택 “새바람 · 새로운 변화로 전북도당 개편할 것”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재선의 김성주 의원과 초선의 이원택 의원이 경선을 펼치게 됐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병)은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도당위원장이 되면 전북의 현안을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서 중진 정치인의 역할과 성장이 중요하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에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북정치에 새로운 대표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의 성공시대를

열려면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김성주는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 · 부안)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간단회를 갖고 “새바람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인으로서 위원장에 당선돼 도당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비전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에 도당은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전북 뒤 찾기를 해야 한다”면서



김성주, 이원택 의원이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과 기자회견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선에서 도당이 지역 현안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 “9명의 의원들이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 가운데 1명으로 협의 했다”며 “하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아쉽게도 원탑 정권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원팀이 도당위원장 선출에서만 아닌 전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정의대, 정부부처와의 소통 등 열정과 비전, 인적네트워크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가 새로운 바람과 변화와 비전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 기해줄 것”이라며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종삼총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 사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다가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 민주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공모에 김성주 · 이원택 최종 등록

5일 권리당원 · 6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

투표 참여 못할 경우 7일 ARS로 투표 가능

9일 열리는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에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병)과 이원택 국회의원(김제 · 부안)이 최종 접수했다.

이로써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는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 방식의 경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3일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태규)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재공모에서 김성주의원과 이원택의원 두명의 의원이 등록 접수함에 따라 이들 두명의 의원을 최종후보

로 결정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실시된 기호 추첨 결과 김성주의원 기호 1번, 이원택 의원이 기호 2번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에 따라 도당 선관위는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경선으로 치러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ARS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은 권리

당원 온라인투표는 8월 5일, 전국대의원 온라인투표는 8월 6일에 실시되며 이들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강제 ARS투표는 8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되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ARS투표는 8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전국대의원투표 50%, 권리당원투표 50%를 반영, 합산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대체)는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부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과 2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수처장, 청문회 대상 포함 내용 등 담겨... 오늘 본회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 인사청문회법 ·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 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법 ·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3일 전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지방자치 전반 걸친 변화 예상”

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성경찬 도의원 “지방의회 권한 낮아 전면적인 수정 필요”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정1)은 3일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경찬 대표는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및 대

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돼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안권욱 지방분권 전국 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북도의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성경찬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

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중앙당 및 국회의원과 적극 소통해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0명,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7명, 관계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